

한덕수, 오늘 총리 사퇴 유력... 내일 광주서 대선 출마 선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가 고향... 호남 출신 강조하며 5·18 묘지 참배 등 통합 행보 관측
3일 국힘 최종 후보 결정되면 단일화 협상 급물살... 7일까지 1차 시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르면 1일 사퇴 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광주를 찾아 출마선언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보의 심장인 호남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호남 출신(전주)임을 강조해 통합의 행보를 보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30일 정부와 구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 대행은 1일 오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소화한 후 오후에 사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은 사퇴 다음 날인 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는 등 호남 행보를 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과 함께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경제·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담길 전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진영을 아우르는 거국 내각 구성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정치와 행정의 협력' '대한민국의 위로, 앞으로 도약' 등을 강조하며 통합과 도약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한 대행의 공식 사퇴와 출마 선언을 앞두고 한 대행 측 실무진은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선 경선 때 사용하던

여의도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을 넘겨받은 것으로,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면 이곳이 대선 캠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고, 다음달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양자 간 단일화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종 결선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경선 후보 모두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다만, 김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한 후보는 당내 경선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후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중앙선거위 대선 홍보물 인쇄 발주 마감일인 7일 전으로 보고 있다.

이날을 놓칠 경우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홍보물에 단일 후보임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만약 7일을 넘길 경우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11일이 다음 시한이 될 전망이다. 이날까지 단일화에 성공해야 누가 단일후보가 되는 '기호 2번'을 사용할 수 있고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지원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일화 시기가 11일을 넘기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이 사실상 마지막 선이 될 전망이다. 이날을 넘기면 단일화에 성공해도 투표용지에 한 대행과 국민의힘 후보의 이름이 모두 인쇄돼 단일화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한동훈 “단일화, 당 최종 후보 중심으로 논의할 문제”

“한 대행 출마도 안했는데 경선에 힘 빼는 것...가능성은 다 열려있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대선 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최종) 후보가 곧 나온다. 그 후보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문제”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은 사람과의 단일화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경선의 힘을 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저는 어떤 세력과도 후보가 되면 힘을 합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공통점을 찾을 때지 차이점을 찾을 때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위협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과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동의하는 상식적인 정치를 하는 분이려면 누구에게도 손을 잡자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의 연대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최종 2인 경선에 진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제가 이기는 선택이라는 점을 (당원들이) 집단지성으로 선택(판단)하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적으신 분들보다 오히려 관심이 훨씬 더 전략적인 판단을 한다”고 분석했다.

한 후보는 자신과 양자 대결을 벌일 김문수 후보에 대해 앞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확정된 전과 숫자보다 오히려 김 후보의 숫자가 더 많지 않느냐’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괜히 그랬다고 생각한다”며 “후회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는 “(홍 후보와 저는) 지고 난 후 당권 이런 건 필요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나왔다. 적어도 그 결과가 같다”며 “언제든 만나고 싶다”고 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하지 않겠다”

한국지방신문협회 대선후보 공동 인터뷰 - 개혁신당 이준석

국힘은尹 탄핵 사태서 수명 다해 지역 균형발전, 지역간 경쟁 필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본인의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광주일보 등 9개 지역 대표 언론사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지역 공약 등도 공개했다. 다음은 이 후보와 일문일답.

-21대 대선 도전 각오는.

▲이번 대선은 완전한 정치 교체와 세대 교체를 해야 한다. 썩은 보수의 경우 이제 도려내고 새로운 보수의 씨를 틔워야 되고, 대선이라는 공간은 이를 실현하기에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본다. 국민의힘에는 훌륭한 분들도 많고, 제가 정말 좋아하고 친했던 의원들도 있었다. 하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서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보면 조직으로서 수명이 다했다고 생각이 든다.

-빅텐트에 대한 입장은.

▲빅텐트를 볼 때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인데, 내키지 않는다. 다만, 안철수 의원처럼 과학기술에 매우 관심이 많고, 탄핵 사태 당시 흔들리지 않았던 인물과는 같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분들은 믿을 수가 없다. 한동훈 후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셀 때는 그 옆에 붙어 있다가, 지금 와서는 다른 생각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

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이 가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생각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비판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교차된다. 그 서슬 퍼렇던 시절에도 계속 견고해 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저런 위험성(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것과 싸우다가 제가 사실상 당 대표직에서 쫓겨났다. 처음에 윤 대통령이 이상한 김새가 보였을 때 진영 논리로 많이 덮어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저는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는.

▲이재명 후보는 기회 포착 능력은 뛰어나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시절에 탄핵을 가장 먼저 언급한 기초자치단체장이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였고, 중앙정치에서 한순간에 주목 받게 된 것도 그분의 메시지 능력이었다. 이 후보의 능력을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 돈(예산)을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쓴다. 성남시는 '불교 부단체' (정부의 교부세를 안 받는 지자체)여서 몇 천 억씩 돈이 남으면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썼지만, 한계점이 존재했다. 실제로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면서 돈 쓸 데가 많아지니까 무상 시리즈를 한 정책이 거의 없었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 간 경쟁을 가속화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지역 공약은 결국은 조세에 있다. 현재 국제 중 법인세 90%, 지방세가 10% 비율인데, 국제인 법인세의 30%를 지방에



줘서 자립도를 높이고, 미국처럼 세월에 대한 자치권까지 부여해서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 제가 미국에서 살아본 경험에서 미국의 주정부와 우리 지방정부의 자치권에서 가장 큰 차이는 세월에 자기 결정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 시각에서는 오히려 집적화를 통해서 국토 발전에 더 유리한 전략일 수 있지만, 이제는 경기 남부까지 포화가 됐다. 그동안 소위 진보 정부에서는 17개 시도 전체를 균등하게 재원을 배분해서 균형 발전을 꾀했지만, 이제는 지자체 간 경쟁 요소 도입이 필요하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